

무주서 옛 제철공정 발견

설천면 삼공리 928번지 일원
제철유적지에서 채광지 등 다수



무주군은 설천면 삼공리 928번지 일원의 삼공리 제철유적지.

무주군은 설천면 삼공리 928번지 일원의 삼공리 제철유적지에서 제철공정을 엿볼 수 있는 철광석 채광지와 제련로, 제철 폐기장, 숯가마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제철유적지 발견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이곳 일대를 발굴·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발굴 조사지역은 계곡의 동편에 자리해 있으며 주변에서는 철광석과 철재 부산물 등이 다량 확인되고 있다. 삼공리 제철유적지는 2019년 시굴조사에서 철 생산 관련 시설들이 있던 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제련로와 석축시설, 철재부산물이 폐기된 대규모 폐기장 등이 조사됐다.

또 주변으로 철광석을 채굴하던 채석장과 숯가마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파악됐으며 다량의 노내재, 유출재, 노벽편, 토기편 등도 출토됐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김경미 팀장은 "현재까지 무주군 일원에서는 60여 곳의

제철유적지가 확인됐다"라며 "이번 발굴조사는 이들 유적의 성격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발생시기와 제철공정, 범위 등을 파악해 문화재지정 등의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 교단 내 종교행사 19일까지 휴회 결의

대각개교절 기념식은
26·28일 중 선택 시행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교단 내 종교행사를 1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7일 교단 내 종교행사를 1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교단의 법적 휴회를 19일까지 연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교구에서 교구장 주관 회의를 열어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개교절(4월 28일) 기념식은 국내의 교당에서 26일과 28일 중 선택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단의 최고 지도자인 '전산 김주원 종법사'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사회적인 메시지와 대각개교절 영상 범문은 26일(일) 공개하기로 했다.

원불교 익산성지에 자리하고 있는 중앙총부는 28일 종법사가 임석한 가운데, 중앙총부 소속의 교부(성직자)들과 수도원 교부들만 참석해 대각개교절 기념식을 진행하고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심화할 경우 대책위를 열어 대각개교절 기념식의 축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교부들은 중앙총부 구내에 장소를 마련해서 격리하는 방안과 공격적 마스크의 직접 지원이 어려운 해외 교당

과 상여금을 모아 자립이 어려운 교당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과 원광보건대학 등 교단 설립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교부들이 기금을 마련해 운영비 지원에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가상현실체험관이 찾아옵니다'

정읍시, 시립박물관 1층
구 어린이문화놀이터 리모델링
VR 체험관으로 새롭게 조성
드론 이용 항공촬영 기법 도입



정읍시가 시립박물관 1층 구) 어린이문화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정읍 관광 VR 체험관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에 들어간 시립박물관에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체험관 조성을 준비해 왔다. 체험관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정식 오픈할 예정으로 시립박물관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콘텐츠는 정읍의 대표 명소인 내장산의 사계절 중 푸른 신록으로 가득한 여름과 붉게 물든 가을의 풍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담아냈다. 특히, 더욱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기법을 도입하고 VR 시뮬레이터 의자 4대를 설치하는 등 첨단 장비를 구비해 실제 열기구를 타는 느낌이 들도록 가상체험형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시는 VR 콘텐츠를 통해 외부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지역 내 관광지를 소개하고 현장 방문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R 체험관은 주 5회(월요일 휴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료는 이용자 전원 무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장 120cm 이하로 이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도입된 정읍 관광 VR 체험관 조성을 계기로 단풍의 고장인 정읍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흥미 유발과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협회(회장 노성수)는 8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문화관광해설사 협회는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정읍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정읍의 역사와 문화·관광 자원에 대하여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문화 관광도시 정읍시의 이미지를 대내외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성수 회장은 "이 성금이 소외된 계층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시민들의 힘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재난구호 물품 구입과 방역 등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통문화전당, 올 첫 대관 전시 '힐링'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문화계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힘이 되고자 '힐링'(healing)을 주제로 올 첫 대관 전시를 시작한다. 전당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시민들에게 전시는 물론 휴식과 힐링을 주고자 올 첫 대관으로 국기순 작가의 '또랑내 풀 한 포기 머그에 담다' 전시를 열게 했

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1관에서 진행 된다. 전시는 국 작가의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는 또랑 내의 작은 풀 한 포기를 작가만의 독특한 기법과 컬러로 머그와 기타 생활도자기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